



26-1 독일 만하임대학



독일 만하임대학교

26-1학기 파견후기

도시사회학과 박주원

목차

- 1 파견 도시 소개
- 2 만하임대 소개
- 3 준비 과정
- 4 만하임대 수업
- 5 마무리



1 파견 도시 소개

만하임 (MANNHEIM)



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속한 도시로,
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기차로 30분-1시간
(RE/ICE)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.

기숙사부터 시내, 중앙역까지 트램 및 버스, 보도
및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사진은 시내
급수탑 앞 공원인데, 급수탑을 포함해 만하임 바
로크 궁전, 루이젠 파크 등 휴식 공간이 많아
여유를 즐기기 좋습니다.



2 만하임대 소개

만하임대학교 (UNIVERSITY OF MANNHEIM)



만하임대학교는 경영학, 경제학 포함 사회과학 분야에서
독일 최고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

봄학기는 2-6월, 가을학기는 9-12월로 운영되며,
국제학생 비중이 높고 학부에서
다양한 영어 수업을 제공합니다.

유럽에서 가장 큰 바로크 양식 궁전 중 하나를
캠퍼스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

3 준비 과정

비자

- 주한독일대사관에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후 인터뷰 절차를 거치면 추후 대면으로 비자 수령이 가능합니다.
- 현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거주 허가(RESIDENCE PERMIT)도 같은 기능을 하지만, 서류 제출 및 인터뷰 예약 과정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.

기숙사

- 어플리케이션 완료 이후 기숙사에 대한 안내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면 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울멘벡 혹은 하펜스트라세에 있는 2개 기숙사 중 하나로 배정받게 되시며, 남녀혼성 최대 6인 플랫으로 구성됩니다.

수강신청

- 봄학기 기준 1월 중순 수강신청이 진행되었으며, 독일어 및 문화 강의(교환학생 대상 강의)를 제외하고는 선착순이 없습니다.
- 강의는 LECTURE, SEMINAR, EXERCISE, TUTORIAL 4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사회과학대학은 주로 SEMINAR 강의를 이루어집니다.



4 만하임대 수업

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

기말고사 100% 평가로
온라인과 대면 수업 병행하여 편의성이 좋았고,
비대면 EXERCISE 수업을 추가로 수강하여
시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.

GENERAL GERMAN LANGUAGE COURSE A1.1

중간, 기말이 있었으며 주2회 수업 기준으로
1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. 독일어에 관심이 있으시다
면 현지에서 언어를 배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

수강 후기

POPULAR SUPPORT AND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

과제, 발표, 토론, 기말보고서로 평가 받는
전형적인 세미나 강의였습니다.
15명 내외 소규모 강의로, 보통 5-6명으로 그룹을 나누어
논문 및 강의주제에 관한 가벼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.

COMPARING EUROPEAN WELFARE STATES:

ANALYZING CROSS-NATIONAL DATA

간단한 데이터 에세이와 기말 보고서 제출 및
추가 보고서 제출로 총 6ECTS 취득했습니다.
데이터 및 그래프 해석 관련 실습으로 인해 노트북 필수이며
수업 중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주로 활용하였습니다.



5 마무리

준비물 추천

날씨 변화가 심한 편이라
모자가 있는 방수 바람막이와 같이
비를 막을 수 있는 가벼운 외투가
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

라면 스프, 블럭국과 같은 간편한
식재료가 도움이 되었습니다.

귀국 시 짐을 줄이기 위해
여기서 입고 버릴 옷을
챙겨오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
만하임은 석회 농도가
높은 편입니다.

ESN 행사

ESN이라는 단체에서
BUDDY 프로그램을 포함해
학기 중 교환학생을 위한 행사를
다수 진행합니다.

정착 초기 바쁘시겠지만,
다양한 교류를 원하신다면
초기 행사에 꼭 참여해보시기를
바랍니다.

처음에는 이메일로,
추후 왓츠앱 그룹챗으로
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파견 후기

대학 재학 중 교환학생을 한번은
가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
무작정 지원했습니다.

걱정이 많았습지만,
독일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
새로운 활동을 하며 좋은 기억과
좋은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.

준비를 더 해왔다면, 하는 후회도
있었지만 그보다는 오길 잘했다는
생각이 훨씬 컸습니다.
기회가 되신다면 꼭 추천드립니다.



26-1 독일 만하임대학



감사합니다

도시사회학과 박주원 | sj1077@uos.ac.kr